라켓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한 노하우

[라켓 보관 방법]

라켓을 가방에 넣기 전 건조부터 시킨다

라켓은 가방에 담아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두면 좋다. 가방 안쪽에 온도 변화를 차단해주는 소재가 붙어 있는 경우라면 더욱 보관이 편리해진다. 다만 사용한 직후 그립에 땀이 밴 그대로 가방에 넣어두면 그립뿐 아니라 스트링에도 손상이 갈 수 있다. 따라서 그립을 제거하고 보관하거나 완전히 건조한 이후 보관하는 것이 좋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어야 한다.

가방 안에 건조제 투입은 좋지 않다

스트링의 상태 유지를 위해 건조제를 라켓 가방에 넣어두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스트링은 습기뿐 아니라 건조에도 약하다. 특히 천연 소재의 스트링은 건조가 심하면 끊어지기 쉬우므로 적당한 온도와 습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립에 밴 땀을 충분히 건조한 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라켓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차에 넣어둔 채 방치하지 않는다

카본 재질의 라켓은 여름에 차 안에 방치하면 고온에 노출되면서 프레임이 뒤틀리거나 스트링의 성능이 떨어진다. 뒤틀림은 목제 라켓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고온 다습한 환경은 라켓 손상의 원인이 된다.

[스트링 교환의 기준과 유지 방법]

스트링은 젖으면 타구감이 달라진다

나일론과 천연 스트링은 젖거나 습기를 머금으면 성능이 떨어진다. 게다가 건조되면서 딱딱해져 손상되기 쉽다. 스트링이 젖었다가 다시 마른 이후에는 타구감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때에는 평소의 타구감과 비교해 보기 바란다. 불편을 느낄 정도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스트링을 교체하는 것이 좋다.

스트링이 끊어졌다면 ㅗ자로 전체 스트링을 끊어준다

스트링이 끊어지고 나서 교환할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처음 끊어진 상태 그대로 두면 일부는 높은 텐션이 가해지고 일부는 느슨해져 라켓 프레임에 좋지 않다. 스트링 커터 대용으로 작은 손톱깎이를 이용해 간단하게 끊을 수 있으므로 전체 스트링을 끊어 놓으면 좋다.

가로 세로로 스트링을 잘라주어 장력을 떨어트리는 것이 프레임의 균형을 지켜준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트링의 성능 저하

나일론 멀티필라멘트 스트링은 공을 칠 때 섬유 조직들이 들뜨게 된다. 이런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섬유조직의 들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모노필라멘트는 섬유조직의 들뜸 현상은 거의 없으나 스트링을 정렬할 때 스트링끼리 맞물려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닳아져 있다면 교체해 주어야 한다. 스핀을 걸면 스트링이 밀리는데 스트링 상태가 좋을 때는 부드럽게 정위치로 돌아온다. 그러나 제자리로 잘 돌아오지 않는다면 스트링이 마모되었다는 증거다. 스트링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마모되었다면 위험한 상태이다. 스트링을 밀어보았을 때 눌린 흔적이 있다면 상당히 손상된 상태이다.

스트링 교환의 타이밍은 시간으로 정한다

스트링은 사용하는 만큼 손상되는 소모품이므로 자신의 플레이 시간을 계산해서 교체할 시기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24~30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교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테니스를 한다고 보았을 때 1, 2개월에 한번씩 교환하면 스트링의 상태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온도 및 습도도 바뀌므로 이 또한 스트링에 영향을 미친다.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도 계절이 달라질 때 한 번, 일년에 총 4번 정도는 교체하는 것이 좋다. 종종 스트링이 끊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라켓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고 실력 발휘에도 좋지 않다.

[오버그립 교환]

밝은 색이 교환 시기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동호인 중에는 더러움이 눈에 띄는 것이 싫어서 검은색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얀색 오버그립을 말아서 사용하면 오염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어서 교환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검은색 오버그립을 감아서 색이 변할 정도일 때는 이미 손상도가 상당한 상태이므로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오버그립은 땀을 흡수한 후 마르면서 굳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굳은 정도로 교환 시기를 알 수도 있다.

쥐었을 때의 감촉이 얇게 느껴진다

오버그립 자체가 얇기는 하나 그립 위에 감으면 나름의 두께가 형성된다. 막 감았을 때는 쿠션감이 있으나 사용할수록 약간씩 얇아진다. 손으로 쥐었을 때 감촉이 다르게 느껴지므로 이 감촉을 통해서 교환 시기를 점검할 수 있다.

리플레이스먼트 그립으로 교환

오버그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경우 얇은 손잡이를 선택하고 리플레이스먼트 그립으로 교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성이나 주니어 선수 중 얇은 그립을 선호하는 이들은 리플레이스먼트 그립으로 교환하는 이들도 있다. 점착제가 붙어 있어 감는데 요령이 필요하므로 테니스숍에 요청하면 감아준다.

합성피혁과 가죽제의 다양한 리플레이스먼트 그립

여름에는 오버그립을 한 달에 한번 교환하는 것이 좋다

오버그립은 대량의 땀으로 인해 여름에는 빠르게 망가진다. 한 달에 한번 정도 교환해 주면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좋은 플레이를 유지할 수 있다.

[라켓, 스트링을 보호하기 위한 아이템]

엘라스토 크로스 스트링끼리의 마찰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천연 거트를 사용하는 프로 선수가 경기 중 스트링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양을 붙이면 면압이 달라지지만 약간이라면 면압의 변화 없이 보호도 가능하다.

스핀 플러스 스트링에 바르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마찰을 방지하여 타구감이 부드러워지며, 스트링끼리의 마찰을 줄여준다. 휘발성이라 바로 증발하며 스트링 안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습기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다.

에지가드 프레임의 상부에 달아서 범퍼를 보호하는 액세서리도 있다.

엘라스토 크로스

[범퍼의 손질과 그로멧 교환]

① 범퍼 사이에 낀 모래 제거

헤드 부분의 범퍼는 라켓을 사용할수록 코트와의 마찰 등 외부의 영향으로 약간씩 들뜬다. 스트링 교체 전에 모래 등을 제거해준다. 모래가 껴 있으면 프레임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스트링 장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직접 제거가 어려운 경우 숍에 문의하면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

② 1년에 1회 그로멧 교환

그로멧도 프레임 안에서 마찰에 의해 소모되거나 스트링을 여러 번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게 된다. 테니스를 자주 하는 사람은 일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것이 좋다. 그로멧이 없으면 스트링이 마찰로 인해 쉽게 끊어지기도 한다. 스트링 교체시 함께 교체 가능하다.

글_테니스코리아 **사진**_GettyImagesKorea